

일본문명의 형성과 외래문명의 수용 양상: 쇼소인과 견당사, 그리고 헤이안 시대 모노가타리*

이미숙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본고는 고대 일본의 동아시아 문명교류 통로인 견당사와 그러한 통로를 통해 유입된 문물의 구체적인 실상을 나라 쇼소인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일본 밖에서 들어온 한문서적이라는 외래지식과 외래문명이 그 시대 일본문명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와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텍스트를 통해 살펴본 논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일본문명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충돌하며 일본 나름의 문명을 형성해나가는 데 영향을 미쳤던 중국으로 대표되는 외래문명이 일본문명의 형성과정에 어떻게 수용되고 융합되었는지 일본문명 수용방식의 일단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쇼소인, 견당사, 북로드, 다케토리 모노가타리, 겐지 모노가타리

I. 머리말

일본의 대표적인 고소설인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1008년경) 「에아와세(繪畷)」 권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어떠한 예능이든 열중하지 않고는 배울 수 있는 방도가 없지만, 제각각의 길에 스승이 있고 배울 만한 바가 있다면 그 깊이가 깊은지 얇은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레 배운바 그 자취가 있을 것입니다. 붓을 드는 길과 바둑을 두는 일이야말로 이상하게도 타고난 재능의 깊이가 보입니다. 깊이 노력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어리석은 자라도 그럴 만하여 그림을 그리고 바둑을 두는 예 또한 나옵니다. 명문가 자제 중에는 역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무엇이든 좋아하며 터득한 듯이 보입니다.

* 이 연구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상황의 안전에서 친왕들, 내친왕(內親王) 누가 이런저런 다양한 예능을 배우지 않으셨겠는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다하셔서 솜씨를 이어받으신 보람이 있어, 문재(文才)는 더 말할 나위 없고 그 이외의 것 중에서는 칠현금 타시는 것이 으뜸가는 재능이시고, 다음으로는 횡적, 비파, 쟁금을 잇따라 배우신다고 주상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라사키시키키부 지음, 이미숙 주해, 2017: 447)

남자 주인공인 히카루겐지(光源氏)의 문학적 재능과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기술하는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히카루겐지가 다른 악기와 더불어 비파(琵琶)라는 현악기를 배웠으며 조예가 깊다는 점이다. 4현금인 비파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타는 악기이지만 페르시아·아라비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일본에는 인도와 서역(西域)¹·중국을 거쳐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奈良)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 보관되어 있는 ‘나전자단오현비파(螺鈿紫檀五絃琵琶)’의 존재이다. 현존하는 유일한 5현 비파이며 표면에 그려진 낙타에 탄 페르시아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비파를 연주하는 이국적인 모습에서 이 비파의 국제적인 성격과 더불어 일본에 유입된 페르시아 문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겐지 모노가타리』의 시대적인 배경이 10세기 중반의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에 들어온 비파는 200년의 세월을 거치며 천황가 사람들이 익혀야 하는 교양의 하나로 일본문화에 스며들어 정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겐지 모노가타리』에는 일본 밖에서 들어온 외래물품에 관한 기술이 다수 등장한다. 이를 통해 천 년 전 문학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문화교류는 오늘날에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활발하였으며 일본은 높은 수준의 문화국가를 형

¹ 고대 중국인이 중국 서방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킨 총칭이다. 본래는 동투르키스탄을 가리켰지만, 서투르키스탄, 나아가 서아시아로 확장시켜서도 말한다. ‘서역’이라는 표현은 『한서(漢書)』에 처음 보이며 서방 나라들에 관한 『서역전(西域傳)』이 만들어졌다. 『서역전』에서는 서역의 지리에 관해 “남북에 큰 산이 있으며 중앙에 강이 있고 동서 6천여 리, 남북 천여 리”로 서술하고 있어 타림 분지, 즉 동투르키스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한서』 『서역전』에는 동투르키스탄 나라들만이 아니라 서투르키스탄, 인도, 이란 등의 나라들에 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브리태니커 국제대백과사전』).

성한 중국과 인적·물적으로 교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겐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동아시아 문화 교류는 작품이 성립한 11세기 초의 송나라·고려와의 교류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인 당나라·발해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중심을 이룬다. 텍스트 내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견당사나 발해사와 같은 사절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람·물품·지식 등의 교류 양상을 『겐지 모노가타리』 작품세계에 대입해보자면, ‘사람’은 이국에서 방문해 온 ‘고마우도(高麗人)’, 즉 발해 사람²이다. ‘물품’은 동아시아 교역권에서 유입된 ‘가라모노(唐物)’라고 불리는 외래물품이며, 이 표현은 “본래 중국에서 들어온 박래품 또는 중국을 경유한 박래품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지만 그 뜻이 전화하여 넓게 이국에서 들어온 박래품 전반을 총칭”(河添房江, 2014: 1)하게 되었다. ‘당(唐)’으로 표현되는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이 외래물품 전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당에서 들어온 문물이 일본 내에 유입된 외래문물 가운데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식’은 ‘한문서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밖의 문물은 주로 사절단 또는 사절단과 함께 온 외국인이라는 매개를 통해 들어왔다. 물론 사절단을 통해 일본의 물품이 일본 밖으로도 나갔지만, 고대 일본 문명은 일본 안팎의 문물이 비등하게 교류되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밖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수용되었다는 점을 전제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 문물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누군가(人)’가 ‘지식(知)’이나 ‘물건(物)’을 운반하고 갈무리하여 분석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여야만 하였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당연히 매개자인 사람이었고, 인적 교류는 크게 일본과 바깥 나라를 오가는 공식 사절단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문화의 유입이나 수용에는 인적인 교류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는 나라 시대 이전부터 한반도로부터 동아시아 문화와 종교 등이 유입되고 문화인도 많이 도래(渡來)하여 이들이 일본문화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안에서 밖으로 나가 문화를 유입해온 견수사

² 『겐지 모노가타리』에 그려진 고려인, 즉 발해 사람에 관한 기술은 어린 히카루겐지의 관상을 보고 그의 장래를 예언하였다는 「기리쓰보(桐壺)」 권의 일화가 대표적이다.

(遣隋使), 견당사(遣唐使), 견신라사(遣新羅使), 견발해사(遣渤海使)³ 등의 일원으로 한반도나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일본으로 되돌아온 관료, 유학생, 승려 등과 이들 사절단과 함께 일본으로 들어온 외국인들과 그들에 의해 일본에 유입된 문물은 일본 토착문화와 부딪치며 융합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대 일본의 문명 수용 양상을 오늘날에도 여실히 보여주는 나라 쇼쇼인과 고대 일본의 사절단을 대표하는 견당사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밖에서 들어온 한문서적이라는 외래지식이 그 시대 일본문화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헤이안 시대의 산문 양식인 ‘모노가타리(物語)’에 나타난 실제적인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일본문명의 형성과정에 외래문명이 어떻게 수용되고 어울려 융합되었는지 일본문명의 수용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쇼쇼인의 유물과 실크로드

나라 시대의 기본 사료인 『쇼쿠니혼기(統日本紀)』(797년 성립, 697~791년 대상) 736년 기사(青木和夫 외 校注, 1990: 302, 304)에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둘 있다. 8월 경오일(庚午日, 23일)에 “入唐副使從五位上中臣朝臣名代等 率唐人三人波斯一人拜朝”라는 기사와 11월 무인일(戊寅日, 3일)에 “准判官從七位下大伴宿禰首名 唐人皇甫東朝 波斯人李密翳等 授位有差”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8월 기사를 보면 견당사 부사가 당나라 사람 세 명과 파사 인(波斯人)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와 천황을 예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파사 인은 중국에서 페르시아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11월 기사를 통해 그 페르시아인이 이밀예(李密翳)라는 중국식 이름을 쓰고 있었고 그에게 위(位)를 내려 관료로서 일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³ 東大寺教学部 編(2002: 225-228)에 따르면, 견수사는 607년, 608년, 614년 3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견신라사는 675년부터 779년까지 22회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견발해사는 728년부터 811년까지 13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5일 <산케이 뉴스>를 비롯한 일본의 많은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나라 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서 나라 시 헤이조(平城) 궁터에서 출토된 목간에 ‘하시 기요미치(破斯清通)’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밝혀졌다. ‘파사(破斯)’는 페르시아를 뜻하는 중국어인 ‘파사(波斯)’의 다른 표기이다. 페르시아인이 자신의 출신지를 일본식 성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66년 발굴된 이 목간에는 “大學寮解申宿直官人事員外大屬破斯清通天平神護元年”이라는 문자가 적혀 있다. 발굴 당시에는 문자를 전부 해독할 수 없었는데, 적외선 촬영으로 ‘파사’를 판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天平神護元年’은 765년을 가리킨다. 이 목간의 내용은 관료를 양성하는 대학寮(大學寮) 숙직 근무에 관한 기록이다. ‘대속(大屬)’은 4등 사무관 직책명이며 ‘원외(員外)’는 특별직이라는 의미이다. 즉 페르시아인인 하시 기요미치의 국제적인 지식을 살려 특별직 관리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가 근무지의 숙직 근무도 설 만큼 다른 관료와 다름없이 근무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밀예가 736년에 견당사와 함께 헤이조경(平城京, 오늘날 나라)에 들어왔고 이 목간의 하시 기요미치에 관해 기록된 해가 765년이라는 사실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나라에서 지낸 페르시아인들로 견당사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장안(長安, 오늘날 시안)에 들어온 뒤 견당사와 함께 일본의 나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일본에서 출발한 사절단의 목적지가 수.당의 수도인 장안, 실크로드의 중국 쪽 기점으로 알려진 장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헤이조 경 쪽의 입장에서 장안에서 일본의 헤이조 경에 이르는 루트는 실크로드의 지선(支線)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쪽의 입장에서 볼 때 견수사와 견당사가 해상로를 통해 실크로드의 중국 기점인 장안을 목표로 출발하고 임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셋쓰 지방(摂津國, 오늘날 오사카)의 스미요시 진(住吉津, 현재의 오사카 시 스미요시 구)은 ‘실크로드의 일본 현관’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나라 시인 헤이조 경은 하야시 료이치(林良一, 1966) 씨가 명명하였듯이 “실크로드의 종착역(米田雄介, 2010: 9)”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일본인들이 나라를 동서 교통로의 동쪽 끝이자 장안에서 이어진 실크로드 지선의 끝으로 여기고 있으며,

장안을 거쳐 나라에 이르는 길 또한 실크로드의 연장선이나 지선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실크로드를 확장하여 일본의 나라를 ‘실크로드의 종착지’로 강조하는 것은 이른바 실크로드 연선의 국가나 지역에서 다양한 문물이 일본의 나라로 전달되어 그것이 일본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일본문화의 세계적인 성격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실크로드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과 진·한 제국, 또는 대당(大唐) 제국 시대의 동서 교역을 염두에 두며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넓게는 근대(대항해시대) 이전의 유라시아 세계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던 국제 교역을 염두에 두고 남북 교역로와 해상 교역로까지 포함하여 쓰인다. ‘오아시스 길’ 이외에도 가장 먼저 생겼던 북방의 ‘초원길’과 남방의 ‘바닷길’(도자기길, 향료길)까지 아울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실크로드의 범위 및 개념의 확대는 실크로드 교역로 연구 자체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방증으로 들 수도 있다. 그와 더불어 견수사와 견당사가 해상로를 이용하여 중국 장안으로 직접 건너가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서역의 문물과 사람을 직접 일본으로 들여왔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대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한반도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반도를 단순한 문화교류의 경유지로 폄하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의식이 내재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일중 문화교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이 공동 제작한 〈NHK 특집 실크로드(NHK特集 シルクロード—絲綢之路—)〉가 1980년 4월부터 1년간 총 12회에 걸쳐 방송된 데서 촉발되었다.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실크로드 문화 수용의 대표적인 흔적은 7~8세기 아스카 시대(飛鳥時代, 6세기 말~7세기 전반)와 나라 시대의 문물을 모아둔 나라 시 도다이지의 쇼소인(正倉院)에 보관되어 있는 중국과 페르시아 제의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쇼소인의 유래는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를 ‘쇼소(正倉)’라고 한 듯”(米田雄介, 2010: 26)한 데서 연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쇼소인은 756년 쇼무 태상천황(聖武太上天皇, 재위 724-749)이 세상을 뜬 뒤 고묘 황태후(光明皇太后)가 사십구재를 올리던 날 도다이지 대불(大佛)에 천황이 아끼던 여러 보물을 봉납하고 명복을 빈 데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쇼무 태상천황의 유품에 외래물품이 많은

이유는 그가 견신라사나 견당사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당의 문물이나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신라로부터 들어온 박래품들은 우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왕권에 흡수되고 그로부터 신하에게 재분배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상대(上代)의 박래품은 조정이 항상 관리하고 통제 아래 두려고 한 귀중한 물품이며 쇼쇼인 북쪽 창고에 있는 보물이란 바로 그러한 물건들” (河添房江, 2014: 28)이었다.

쇼무 태상천황의 유품을 기반으로 하여 황실과 귀족들이 현상한 물품과 도다이 지 의식에 쓰이던 물품, 도다이 지 말사가 현상한 물품 등이 더해졌다. 약 9천 점에 이르는 물품 대부분이 8세기 나라 시대의 것이다. 당이나 신라는 물론이고 이란과 터키의 제품도 있어 일본에 영향을 미친 세계 각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페르시아의 제품인 ‘백유리완(白瑠璃碗)’을 비롯하여 희고 푸른 터키 석(이란 산)과 아프가니스탄 산 라피스 라줄리(청금석) 원석을 사용한 ‘나전경(螺鈿鏡)’, 양이 디자인된 납결 염색 병풍으로 일본 제품이지만 나무 아래에 있는 동물 구도가 사산 조 페르시아(3~7세기)의 국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성수금수문(聖樹禽獸紋)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목납힐염병풍(羊木騰繡染屏風)’이 대표적인 물품이다.⁴

그러나 히가시노 하루유키 씨가 지적하고 있듯이,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 서방 지역, 즉 서역과 일본과의 관계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본에 직접적으로 문물을 전하고 일본이 문물을 수용한 것은 중국과 한반도였다. 고대 일본이 받아들인 것은 세계적인 성격을 내포한 중국문화였으며, 널리 회자되는 나라 시대 “덴표 문화(天平文化)의 세계적인 성격” 또한 국제성이 풍부한 수와 당의 문화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東野治之, 1988: 16, 18-19). 일본 안팎의 사람들이 왕래한 것을 문헌 조사를 거쳐 정리한 『실크로드 왕래 인물 사전』에 따르면, 개개의 문화 요소의 기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직접적인 인적 교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8세기에 인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은 당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로 그들

⁴ 나라 시의 호류지(法隆寺)에 있는 ‘사천왕사렵문양금(四天王獅獵文樣錦)’의 문양도 사산 조 페르시아의 영향이 있는 서아시아 색채가 짙은 견직물이다.

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일본으로 직접 왔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과의 인적 교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東大寺教學部 編, 2002: 163).

결국, 일본 안으로 외래의 물품과 지식을 들여온 것은 주로 일본에서 밖으로 내보냈던 사절단이었으며, 그중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파견되었던 견당사는 중국의 문물을 일본으로 들여와 일본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적 교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III. 견당사와 북로드

일본과 당의 관계는 견당사(遣唐使)를 매개로 하여 전개되었다. 견수사의 뒤를 이은 견당사는 630년 첫 파견을 시작으로 894년 견당 대사로 임명된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眞)의 사퇴로 파견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막을 내릴 때까지 19회(그중 네 차례 중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실상 당으로 건너간 견당사는 헤이안 시대 초기인 838년이 마지막이었다. 일본이 파견한 견당사는 “당의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조공사”였으며 “당 황제에게 조공품을 헌상하고 당과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정치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었기에 “당의 법전이나 제도, 문화·문물의 수입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지적(古瀨奈津子, 2003: 2)도 있지만, 견당사가 들여온 선진 외래문명이 고대 일본문화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후루세 나쓰코(古瀨奈津子, 2003: 6-9) 씨에 따르면, 견당사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1회(630)부터 7회(669)까지의 견당사가 포함되는 전기는 신라·당과 백제·일본이 패권을 다투고 있어 한반도가 불안정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견당사는 정치 절충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전기 견당사의 구성은 배 두 척에 120명의 구성이었으며 당으로 향하는 항로는 기타큐슈(北九州)의 하카타(博多)를 출발하여 이키(壱岐)·쓰시마(對馬)를 거쳐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황해를 횡단하여 산둥반도(山東半島)에 상륙한 뒤 육로로 장안으로 향하는 ‘북로’로 이용되었다. 시간은 걸리지만 안전하였던 북로는 백제가 멸망한 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후기 견당사는 701년 일본에서 ‘다이호 율령(大寶律令)’이 편찬되

어 울령국가로 나아가게 되면서 재개되었다. 8회(702)부터 20회(894년 미출발. 실제로는 838년이 마지막)까지의 견당사를 이르며, 전기와 30여 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이때는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정세가 안정되어 후기 견당사의 성격은 정치적인 측면보다 법전이나 문화·문물을 들여오는 등의 문화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 후기 견당사는 네 척의 배에 5백 명에서 6백 명 전후가 수행하는 대규모 구성이었다. 전기에 비해 구성원이 늘어난 것은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배우는 유학생과 유학생, 기술자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항로는 하카타에서 고토 열도(五島列島)를 거쳐 동지나해를 횡단하여 장강(양자강) 연안에 도착하는 ‘남로’였으며, 항해 일수는 단축되었지만, 매번 조난자를 널 만큼 위험이 수반되었다.

그렇다면 견당사를 통해 어떠한 ‘사람(人)’이 오갔으며 그들이 ‘배운 것(知)’은 무엇이며 그들에 의해 어떠한 ‘물품(物)’이 일본에 들어와 그것이 ‘지식’으로서 일본문화 속에 뿌리내렸을까?

먼저 견당사를 통해 오간 사람들에 관해서는 견당사의 구성원에게 하사하는 조정의 물품을 정해둔 『엔기시키(延喜式)』⁵에 기술된 구성원 일람을 참고하여 추정(東野治之, 2007: 102-103)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견당사의 구성원은 사절, 통역, 선원, 기술자, 기술연수생, 유학생·유학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기술자는 신관, 의사, 음양사, 화가, 궁수(弓手) 등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838년 마지막 견당사의 일원으로 당에 건너간 엔닌(円仁, 794-864)을 들 수 있다. 엔닌은 희망하던 천태산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자 밀입국의 형태로 당 국내를 순례하며 수행하였다. 그의 행적은 『닛토구호준레이코키(入唐求法巡禮行記)』라는 일기로 기록되어 있다. 유학생으로는 717년 함께 견당사를 따라 당으로 건너간 기비 마키비(吉備眞備, 695?-775)와 아베 나카마로(阿部仲麻呂, 698?-770)가 대표적이다. 기비는 당의 교육기관의 하나인 사문학(四門學)의 조교인 조현묵(趙玄默)에 사사하여 유학을 배웠다. 그는

⁵ 헤이안 시대의 법령집 50권. 905년에 편집이 시작되어 927년에 완성하였다. 『고닌시키(弘仁式)』와 『조간시키(貞觀式)』를 비롯하여 고대 정부의 근본 법령을 보완하는 형태로 그 뒤 반포된 시행세칙을 집대성한 것이다. 실제로 반포된 것은 967년이다. 내용은 울령제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브리태니커 국제대백과사전』).

735년 많은 서적과 천문관측 도구 등을 지참하고 귀국하여 신지식을 겸비한 지식인으로 인정받으며 정권의 실력자로 활약하였다. 반면에 아베는 당의 태학(太學)에 입학하여 과거를 치러 당의 관리가 되었으며 현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견당사와 함께 귀국을 시도하였지만 오키나와(沖繩) 부근에서 조난을 당하여 안남(安南, 베트남)에 표착한 뒤 장안으로 되돌아가 귀국하지 못하고 당의 관리로 일생을 마쳤다.⁶

그리고 견당사는 일본에서 밖으로 나간 것 말고도 일본 밖에서 안으로 외국인 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일본으로 온 사람은 승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당나라 고승 감진(鑑眞)⁷이다. 감진은 “일본에 계율 정신과 의례”를 본격적으로 전한 인물로서 나라 시의 도쇼다이지(唐招提寺, 759)를 연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에 계율을 전하고자 스스로 일본행을 결심한 감진은 753년 견당사가 귀국할 때 17명의 다른 승려(그중 3명은 비구니)와 함께 건너왔다. 헤이조 경에 온 뒤 감진은 일본 내 수계(授戒)를 담당하는 관승으로서 도다이지를 중심으로 활약하며 일본 불교계의 정점에 서게 된다. 일본 조정이 감진에게 기대한 것은 승려의 신분을 한정시키고 불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수계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계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자 한 탓에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도쇼다이지에서 수계자들을 교육하는 데 힘썼다. 견당사를 따라 들어온 감진은 일본에 목조불(木彫佛)을 정착시키는 한편 천태종의 불전을 뿌리내리게 하고 경전을 교정하여 “일본의 불교가 단순히 경문을 베껴 쓰게 하여 공덕을 쌓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전연구로 접어들”도록 만들었다. 이 밖에 견당사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중국 이외의 사람들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페르시아인 이밀예를 비롯하여 도다이지 대불개안공양(大佛開眼供養, 752)을 담당한 인도 승려 보제선나(菩提僊那) 등이 유명하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엔닌이 기록한 『닛토구호준레이코키』에는 신라인 장보고(張保臯, 785-846)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 9세기 초 당과 일본을 잇는 무역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장보고에 관한 일본 쪽 기록은 『닛토구호준레이코

⁶ 엔닌, 기비 마키비, 아베 나카마로에 관해서는 石井正敏(1996: 31-32)를 참조하였다.

⁷ 감진에 관한 기술은 東野治之(2007: 134-138)를 참조하였다.

키』와 더불어 역사서인 『쇼쿠니혼코키(續日本後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장보고의 한자명은 ‘張寶高’로 되어 있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술된 ‘張保皋’와는 다르다. 『쇼쿠니혼코키』에 따르면 장보고의 사망연도 또한 841년으로 되어 있어 5년 정도 차이가 난다.

『닛토구호준레이코키』(엔닌 지음, 신복룡 번역·주해, 1991: 81, 93-92, 133-135)에 따르면 838년 6월 마지막 견당사의 일원으로 일본의 하카타(博多, 오늘날 후쿠오카 시)를 출발한 엔닌은 7월에 중국 양자강에 도착하여 9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한 뒤 847년 9월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왔다. 엔닌은 839년 6월에 산둥성(山東省) 적산(赤山)에 도착하여 다음 해 2월 여까지 그곳의 법화원(法華院)에서 체재하였다. 적산은 당시 신라인들이 모여 살던 신라방(新羅坊)이 있던 마을이며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신라 사찰이었다. 『닛토구호준레이코키』 839년 4월의 기록에는 “더구나 신라는 지금 장보고가 난을 일으켜 내란에 빠져 있는데”, “이른 아침에 신라인이 작은 배를 타고 와서 말을 전하는데, 장보고가 신라의 왕자와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 왕자가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는 두 차례에 걸친 장보고에 대한 언급이 있다. 840년 2월의 기록에는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구구절절하게 귀국길의 편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 기록을 통해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하여 당과 일본 열도를 잇는 삼각무역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일본의 승려들이 당에 들어가 구법을 할 때 선편을 준비하여 그들의 항해를 담당”(李炳魯, 2012: 70)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보고가 지쿠젠 지방(筑前国, 오늘날 후쿠오카 현)에 설치된 대재부(大宰府)에 일본 무역과 관련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기록이 『쇼쿠니혼코키』에 기술되어 있어, 당의 신라방과 일본 대재부를 잇는 그의 삼각무역 루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쇼쿠니혼코키』에서 주목할 만한 장보고에 관한 기록은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쇼쿠니혼코키』 권9 840년 12월 기사일(27일)에는 대재부가 중앙에 올린 “大宰府言 藩外新羅臣張寶高 遣使獻方物 卽從鎮西追却焉 爲人臣無境外之交也(黑板勝美 編輯, 1934: 113)”라는 구절이 있다. 변외의 신라국 신하인 장보고가 사신을 보내 방물을 올렸지만, 인신(人臣)은 경외의 교역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기술이다. 이어지는 『쇼쿠니혼코키』 권10 841년 2월 무진일(27일)의 “太政官仰大宰府云 新羅人張寶高 去年十二月進馬鞍等 寶高是爲他臣 敢輒

致貢 稽之舊章 不合物宜 々以禮防閑 早從返却 其隨身物者 任聽民間令得交關 但莫令人民違失沽價 競傾家資亦加優恤 給程糧並依承前之例(黑板勝美 編輯, 1934: 117)”라는 기술을 통해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장보고가 신라 정부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본에 공적인 교역을 요청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쇼쿠니혼코키』 권11 842년 정월 을사일(10일)에는 “新羅人李少貞等卅人到着筑紫大津大宰府遣使問來由 頭首少貞申云 張寶高死 其副將李昌珍等欲叛亂 武珍州列賀閭丈興兵討平 今已無虞 但恐賊徒漏網 忽到貴邦擾亂黎庶 若有舟船到彼不執文符者 並請切命所在推勘收捉 又去年廻易使李忠揚圓等所賣貨物”(黑板勝美 編輯, 1934: 127-128)이라는 구절이 있다. 842년 정월에 이소정(李少貞) 등이 오늘날 규슈 지방인 쓰쿠시(筑紫) 지방의 오즈(大津)에 왔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장보고는 죽었고 이창진 등의 반란도 염장이 진압하였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일본에 와 있으니 포획하여 넘겨줄 것과 지난해 회역사(廻易使) 이충과 양원이 가지고 온 화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기술이다.

이 같은 『닛토구호준레이코키』와 『쇼쿠니혼코키』 두 문헌의 기록을 통해 “8세기부터 9세기에 걸친 당나라 황해 연안 지역에 존재한 신라방(新羅坊) 등 신라인 사회의 존재”(金光林, 2006: 120)와 상황, 그리고 장보고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당과 일본 사이를 매개하여 교역과 운송을 담당하였던 9세기 한반도의 역할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하여, 견당사를 통해 일본과 중국을 오간 ‘물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東野治之, 2007: 146-157). 우선 일본에서 당으로 가져간 물품은 『엔기시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견제품과 마, 은과 광물제품, 기름·수지(樹脂)와 식물성 감미료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당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것은 크게 한적(漢籍)으로 불리는 중국의 사상·제도·역사·문학에 관한 한문서적과 불교경전, 불상 등을 포함한 미술공예품, 약물·향료와 식물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헤이안 시대 일본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한적, 즉 한문서적이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한문서적이 들어온 것을 왕용(王勇) 씨는 실크로드를 빚대 ‘북로드’(王勇, 2010: 1-11)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당이라는 북로드를 왕래한 견당사는 단순히 문물을 전하는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통해 당의 선진 문물을 몸소 체험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어 그들 자체가 ‘살아 있는 지식’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이 들여온 한문서적이라는 외래문명은 일본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지식’이었다.

IV. 헤이안 시대 모노가타리와 외래문명

1.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시간과 외래문명

일본에서 한국의 고소설에 해당하는 산문문학은 헤이안 시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모노가타리가 헤이안 시대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산보에코토바(三寶繪詞)』(984)라는 책에 기술된 한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노가타리(物語)라고 하여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있는데, 오아라키 숲의 풀보다도 울창하고 아리소미(荒磯海)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다”(源為憲 著, 出雲路修 校注, 1990: 5)는 기술이 그것이다. 『산보에코토바』가 불교설화집인 만큼 인간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소일거리, 즉 바둑, 현악기, 모노가타리를 조심하여야 한다는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모노가타리’⁸에 관한 이와 같은 기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0세기 후반 일본 헤이안 시대에는 하나의 산문 문학 양식으로서의 ‘모노가타리’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미 많은 수의 작품이 나와 독자들이 향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노가타리 작품은 가나(仮名) 문자로 쓰였으며 허구성을 띠었다. 현존하는 모노가타리 작품 중 ‘시조’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최초의 가나 산문문학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9세기 말~10세기 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잇따라 등장한 모노가타리 문학은 11세기 초 『겐지 모노가타리』에 이르러 모노가타리 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질 만큼 전후 모노가타리의 경계를 나누는 최고의 성취를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이들 헤이안 시대 사람들의

⁸ ‘모노(物)’와 ‘가타리(語り)’의 합성어인 ‘모노가타리(物語)’라는 표현에 대해 일본어 사전에서는 그 첫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또는 그 내용. 잡담. 담화”, 두 번째 의미를 “작자의 견문 또는 상상을 기초로 하여 인물·사건에 관하여 서술한 산문 문학작품. 협의로는 헤이안 시대로부터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까지의 작품을 이른다”(《広辞苑》)라고 규정하고 있다.

삶과 문화가 재현된 모노가타리 문학에는 일본 내적인 문화전통과 융합된 외래 문화의 요소가 존재한다.

10세기 후반 성립된 일본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수필인 『마쿠라노소시』 제 1단은 다음과 같다.

봄은 새벽녘. 서서히 희뿌예져가는 산등성이가 조금씩 밝아져, 보랏빛 구름이 가는 다랑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 여름은 밤. 달 밝은 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반딧불이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 그저 한두 마리가 약하게 빛을 발하며 날아다니는 것도 정취가 있다. 비가 와도 정취가 있다. 가을은 저물녘. 석양이 내려 산등성이 가까이 내려와 있을 때 까마귀가 등지로 돌아가느라 서너 마리, 두세 마리 짝지어 서둘러 날아가는 것까지 절절하게 가슴에 다가온다. 거기다 기러기 등이 나란히 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것도 무척 정취가 있다. 해가 다 진 뒤 바람소리, 별레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뭐라 말할 수 없이 좋다. 겨울은 이른 아침. 눈이 쌓여 있으면 말할 나위도 없고, 서리가 아주 하얗게 내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추운 날, 불을 서둘러 지퍼 솥불을 들고 오가는 모습도 어울린다. 낮이 되어 추위가 점점 누그러지면 화로의 불도 하얗게 재가 되어버리면 정취가 없다. (松尾聰·永井和子 校注·訳, 1997: 25-26)

위의 인용은 ‘계절과 특정 시간대’에 착목하여 독자적인 계절의식을 드러낸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대목이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두견새, 가을에는 단풍과 달, 겨울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계절과 풍물’을 결부시켜 계절의식을 드러내었던 기존의 규범적인 계절 미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정화된 발상에서 탈피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하루 가운데 새벽녘과 밤, 그리고 저물녘과 이른 아침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착안하여 그 시간대와 어울리는 정취 있는 풍경 또한 포착해내고 있다. 새벽녘과 저물녘이라는 낮과 밤을 나누는 하루의 결정적인 시간대가 봄과 가을의 대표적인 풍물로 언급됨으로써 계절과는 분리되어 인식되어온 특정 시간대에 대한 독자의 기존 인식이 새롭게 전복되면서 그 시간대는 추상적인 이미지에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시간대로써 시간을 표현하는 데는 당연히 당대의 시간의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전근대 일본의 문학텍스트에는 일본인의 시간의식에 바탕을 둔 시간 표현이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시간성을 탐구하는 것은 문학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전동진, 2006: 200)이며 전근대 시간의식은 당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대 문화의 표상이기도 한 문학텍스트 내 시간 표현의 형상화에도 일본 밖에서 들어온 문화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시대와 공간을 불문하고 어느 사회에서든 시간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만, 각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시간의식에는 편차가 있다.

종래한 사회의 시간의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주의 운동을 수량화한 달력과 역법, 절기와 시간의 분할체계 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것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는 데 집중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시간의식이 문학텍스트 내에 어떻게 표현되고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된다. 시간의식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체험 속에서 구축되어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의식, 문학텍스트 내 시간 표현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한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근대 일본의 산문문학텍스트 내 시간 표현의 연구는 철학에서 논의되어온 이분법적인 시간 담론을 원용하면서 전개되어왔다. 작자의 구상에 의한 외적 시간의 흐름보다 등장인물의 내적 시간에 주목하여 『겐지 모노가타리』를 분석하고자 한 아키야마 겐(秋山度, 1970) 씨의 연구나 『가게로 일기(轉輪日記)』의 시간을 작자의 체험된 시간으로 파악한 사토 세키코(佐藤勢紀子, 1987) 씨의 연구 등이 그 예이다. 철학에서 시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성찰하는 것은 자연 시간과 개념 시간으로 구분한 헤겔, 공간적·동질적 시간과 지속으로서의 시간으로 구분한 베르그송,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으로 나누는 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인식 대상이나 인식 주체의 내면 어느 쪽에서 파악되는가에 따라 외적 시간(물리적 시간, 사회적 시간)과 내적 시간(심리적 시간, 체험된 시간)으로 나눌 수 있어, “문학의 시간은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체험된 시간이며, 후설적 의미에서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규정(전동진, 2006: 206-208)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근대 일본 산문문학텍스트는 서사문학 초기 단계인 고전텍스트인 만큼 이러한 이분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현존하

는 일본 최초의 가나 산문문학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는 완벽한 허구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 형성과정에 일본 내 제 전승담을 혼용하고 불교경전과 중국 신선담 등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10세기 전후하여 형성된 작품이다. 작자는 미상이지만 남성 지식인으로 추정된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미숙, 2015: 224~226).

대나무를 채집하여 물건을 만들어 생계를 잇던 다케토리 할아버지는 대나무 속에서 발견한 귀여운 여자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할머니에게 맡겨 키웠다. 그 뒤로 할아버지가 대나무를 채집할 때마다 마디 사이에 황금이 들어 있는 대나무를 거둬 발견하게 되어 부자가 되었다. 당초 소쿠리 속에 넣어 키울 정도로 조그마하던 아기는 쑥쑥 자라나 3개월 만에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닌 처녀가 되어 가구야 아가씨(かぐや姫)로 이름이 붙여졌다. ‘가구야’는 빛나다는 의미의 ‘가가요우(耀う)’에서 온 말로 보인다.

이에 가구야 아가씨를 보고자 세상 남자들이 몰려들어 담 사이로 엿보는 일이 잦아졌고 당대의 ‘이로고노미(色好み)’로 이름 높던 다섯 남성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이시쓰쿠리 황자(石作の皇子), 구라모치 황자(くらもちの皇子), 아베 미우시 우대신(阿部御主人右大臣), 오토모 미유키 대납언(大伴御行大納言), 이소노카미 마로타리 중납언(石上鷹足中納言)이 그들이다. 끈질기게 구애하는 그들에 못 이겨 다케토리 할아버지는 가구야 아가씨에게 이 세상 여성 누구나 결혼하는 법이라며 결혼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가구야 아가씨는 그 남성들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 ‘깊은 마음(深き心)’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각각 난제(難題)를 제시하였다. 즉 이시쓰쿠리 황자에게는 돌로 된 부처님의 바리때, 구라모치 황자에게는 봉래산에 있는 은을 뿌리로 하고 금을 줄기로 하고 열매는 백옥인 나무의 가지, 아베 미우시 우대신에게는 중국(唐土)에 있는 불에 타지 않는 불쥐의 가죽옷, 오토모 미유키 대납언에게는 용의 목에 오색으로 빛나는 옥, 이소노카미 마로타리 중납언에게는 제비가 갖고 있는 순산을 도와주는 조개를 가져오라고 과제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시쓰쿠리 황자는 산사에 있는 오래된 바리때를 가져왔지만 거짓임이 들통 났고 그의 면목 없는 짓에서 ‘뻔뻔스럽다(はぢをす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구라모치 황자는 대장장이를 시켜 가짜 나뭇가지를 만들어 가져왔지만 이 또한 품삯을 받지 못한 대장장이들의 폭로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고,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황자가 몇 년간 모습을 감추었다가 불쑥 모습을 드러낸 데서 ‘어찌다 불쑥(たまさかに)’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아베 미우시 우대신은 당나라 무역상에게서 불쥐의 가죽옷을 구입했지만 불에 타버려 가짜란 것이 밝혀져, 이루지 못해 ‘허망하다(あへなし)’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오토모 미유키 대납인은 용의 목에 오색으로 빛나는 옥을 찾으러 갔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죽다 살아났는데 그의 두 눈은 옥 같은 자두 두 개를 붙인 듯 붉어져 있었다. 이에, 세상의 도리와 맞지 않는 일을 ‘참기 어렵다(たへがた)’라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소노카미 마로타리 중납인은 제비가 갖고 있는 순산을 도와주는 조개를 찾으려고 발판에 올라갔다가 죽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듣고 가구야 아가씨가 조금 안됐어 하였기에 약간 기쁜 일을 ‘보람 있다(かひあり)’라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섯 구혼자를 난제를 통해 물리쳤지만 이어서 천황(帝)이 가구야 아가씨의 소식을 듣고 입궐시키려 하였지만, 가구야 아가씨가 강하게 거부하여 두 사람은 3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칠월 보름날 가까이부터 달 밝은 날에 가구야 아가씨는 달을 바라보며 시름에 젖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8월 보름 가까운 어느 날 다케토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자신은 ‘달나라(月の都)’ 사람으로 부모도 ‘그 나라’에 있지만 ‘전세의 인연(昔の契り)’이 있어 ‘이 나라’, ‘이 세계’에 왔는데 보름날 ‘달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러 온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천황이 보낸 병사들과 함께 집 안팎을 지켰지만 ‘비차(飛車)’를 가지고 그녀를 데리러 온 천인(天人)들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천인의 말에 따르면 가구야 아가씨는 천상에서 ‘죄(罪)’를 지어 지상에 내려왔는데 다케토리 할아버지가 약간의 ‘공덕(功德)’을 지었기에 그에게 맡겼지만, 이제 죄가 소멸되었기에 데리러 왔다는 것이었다. 가구야 아가씨는 자신의 옷을 편지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추억거리로 남겼다. 그리고 천인이 가지고 온 ‘불사약(不死の藥)’을 조금 맛본 뒤 ‘하늘의 날개옷(天の羽衣)’을 입기 전 와카와 함께 편지를 쓰고 단지에 든 불사약과 함께 천황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가구야 아가씨가 하늘의 날개옷을 입자 다케토리 할아버지를 안됐다, 불쌍하다 여기던 마음조차 사라진 채 백 명 정도 되는 천인들을 이끌고 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남겨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비탄에 빠져 병석에 눕고, 슬픔에 젖은 천황은 불사약도 마시지 않고 가구야 아가씨가 남긴 편지와 불사약을 사람을 시켜 늘과 가장 가까운 오늘날 시즈오카 현(静岡県)인 스루가 지방(駿河国)에 있는 산에 가서 불태우도록 하였다. 그 연기는 아직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전하며, 병사(士)들을 많이(富) 데리고 산에 올랐다고 하여 그 산을 ‘후지 산(富士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개의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를 형성하는 데는 “일본 내 전승담인 ‘다케토리 할아버지 이야기’와 ‘날개옷’ 이야기를 비롯하여 불교경전 등에서 가져온 불교지식과 중국 신선담으로 대표되는 한문서적의 영향 등 외래문화 또한 수용”되었으며, “이렇듯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형성에 다양한 전승담 및 외래문화의 전통이 어우러져 새로운 서사세계를 창조한 것이야말로 바로 일본의 초기서사이자 현존하는 모노가타리의 ‘시조’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특질” (이미숙, 2015: 217)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작품세계 속에 드러난 시간의식 또한 순수한 일본고대의 발상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초기 산문인 만큼 작품세계는 인간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천상세계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작품 내에 천상이라는 이세계(異世界)의 시간과 지상이라는 인간세계의 시간이 제각각 존재하고 흐르고 있는 것이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의 시간 흐름의 차이는 작품 내에 쓰이고 있는 ‘잠깐 동안(かた時)’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잠깐 동안’이라는 표현은 4회 기술되어 있는데, 그중 3회가 가구야 아가씨가 ‘달나라’라는 천상세계 사람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고백과 양부인 다케토리 할아버지, 그리고 가구야 아가씨를 데리러 온 천상의 사람의 말 속에 쓰이고 있다.

① “전부터 말씀드리려고 생각하였지만, 필시 마음이 어지러워지실 것이라 생각하여,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 제 몸은 이 나라(この国) 사람이 아닙니다. 달나라(月の都)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세의 인연(昔の契り)이 있었던 탓에 이 세계(この世界)에 온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야만 하게 되었기에, 이달 보름날에 그 원래 나라(元の国)로부터 저를 마중하러 사람들이 오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식하며 슬퍼할 텐데 그것이 슬프기에, 이 봄부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면서 몹시 운다. …… “달나라(月の都) 사람인 부모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か

カト時)이라고 말하고 그 나라(かの国)로부터 왔건만, 이처럼 이 나라(この国)에서 많은 해(あまたの年)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かの国)의 부모에 관해서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며 가깝게 여겨왔습니다. 대단히 기쁠 듯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슬프기만 합니다. 하나, 제 마음과 달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片桐洋一 외 校注·訳, 1994: 65~66)

② “너, 어리석은 자여. 노인이 미미한 공덕을 지었기에 너를 도우려고 잠깐 동안(カト時)이라고 생각하며 내려보냈거든 긴 세월 동안(そこらの年ごろ) 많은 황금을 받아 다시 태어난 것처럼 되었다. 가구야 아가씨는 죄를 지으셨기에 이리 미천한 네 집에 잠시(しばし) 계신 것이다. 죄장(罪障)이 소멸되었기에 이리 마중을 왔거든 노인은 울며 탄식하는구나. 얼토당토않은 것이다. 어서 보내거라” 하고 말한다. 노인이 답해 말하길, “가구야 아가씨를 보살펴드린 세월이 20여 년이 되었소. ‘잠깐 동안(カト時)’이라 말씀하시니 이상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구야 아가씨라 부르는 사람이 계시는가요” 한다.(片桐洋一 외 校注·訳, 1994: 72)

인용 ①과 인용 ②에서 대비되는 천상세계인 ‘달나라’와 지상세계인 ‘이 나라’에서의 시간 경과는 ‘잠깐 동안·잠시’와 ‘많은 해·긴 세월’에서 볼 수 있듯이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 지상세계·인간세계의 시간 흐름은 천상세계·이세계의 시간 흐름에 견주어볼 때 정신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간다. 이처럼 이세계와 인간세계의 시간 흐름 차이는 일본 고래의 시간 설정이나 시간의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중국의 불로불사 세계인 신선세계와 불교경전에 나오는 불국토(佛國土)와 달의 궁전(月の宮)이라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산물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대 일본의 시간문제에 관해 고찰하는 것은 문화교류를 통한 일본문화의 성립 문제와도 결부된다.

중국 불로불사 세계인 선계(仙界)의 영향을 받은 일본 내 대표적인 설화로는 우라시마 설화(浦島説話)를 들 수 있다. 우라시마 설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8세기 초 성립된 『단고 지방 풍토기(丹波国風土記)』 일문(逸文)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서 선향 체류 설화(仙郷滞留説話)의 일종이다. 우라시마코(浦嶋子)라는 청년이 혼자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서 사흘 밤낮 만에 오색 거북이를 낚았는데, 그 거북이가 절세미녀로 변하여 우라시마코는 그녀와 함께 도코요(常世, 봉래산)라는仙境(仙境)으로 가서 결혼하여 3년간 살았다. 그런 뒤 고향이 그리워 홀로 귀향하

게 되는데 그때 거북이 아가씨는 옥으로 만든 빗집을 주면서 절대 열어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돌아온 세상은 이미 300년이 지나 있었고 망연해 하던 우라시마코가 상자를 열었더니 그의 젊은 육체는 한순간에 천공으로 흩날려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우라시마코가 거북이 아가씨를 따라간 불로불사의 선향인 도코요의 시간 흐름이 인간세계의 시간 흐름과 다르다는 이 설화에는 중국 신선사상의 영향이 확인된다. 신선사상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 불로불사를 구하는 중국 도교사상이라는 점에서 이 설화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세계와 인간세계의 시간 흐름 차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외래문화와 융합된 산물로서의 시간표현은 ‘3’이라는 숫자의 쓰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내 ‘3’이라는 숫자는 이세계에서 온 가구야 아가씨의 성장과 구혼담과 연관되어 주로 쓰이고 있다. 다케토리 할아버지가 대나무 속에서 발견한 귀여운 여자아기는 ‘3촌(寸)’, 즉 손가락 세 마디 크기(片桐洋一 외 校注·訳, 1994: 17)였으며,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할머니에게 맡겨 바구니에 넣어 키웠더니 쑥쑥 자라나 ‘3개월’ 만에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닌 처녀가 되어 성인식을 올려주고 ‘3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片桐洋一 외 校注·訳, 1994: 18~19) 그 뒤 ‘3년’으로 추정되는 동안 다섯 명의 구혼자들의 구혼(片桐洋一 외 校注·訳, 1994: 25)을 받은 뒤, ‘3년’ 동안 천황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사이로 지내다(片桐洋一 외 校注·訳, 1994: 63) 천상으로 올라갔다.

이처럼 작품을 전개해나가는 데 ‘3’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시간의 흐름이 다용된 데는 동양 고래의 음양오행에 기반을 둔 완전한 숫자로서의 ‘3’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노자(老子)』 제42장에는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동양철학의 유무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생(生) 자의 해석을 ‘생겨나다/낳다’와 ‘살다/생활하다’로 달리하여, 번역은 “…… 통일체가 하늘과 땅을 낳고, 하늘과 땅이 음양의 기운을 낳으며, 음양의 두 기운이 …… 생물체가 형성된다”(진고응 지음, 최재목·박종연 옮김, 2008: 309) 또는 “도는 일을 내고 일은 이를 살리며 이는 삼을 기르고 삼은 만물을 이룬다”(최진석, 2001: 337)라고 미묘하게 달라지지만,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구절이다.⁹ 이 구절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3’이라는 숫자가 완성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 쓰인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대 중국의 ‘3’에 대한 관념이 고대 일본에 들어와 일본문화에 융합되어 있는 실제적인 양상을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라는 문학텍스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2. 『겐지 모노가타리』의 한문서적 인용과 외래문명¹⁰

그런데 모노가타리 문학을 형성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한 일본 밖에서 들어온 문화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견당사가 북로드를 통해 들어온 외래문물, 특히 한문서적이다. 즉 동아시아 문화 수용의 실제적인 양상은 주로 한문서적의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용이란 크게 ‘소재로서의 인용’과 ‘구조(또는 틀)로서의 인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용’은 종래 일본문학연구에 있어서 “준거(準據)·출전(出典)·원천(源泉)·히키우타(引歌)¹¹·화형(話型)·패러디라는 용어로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왔지만”, “다원적인 인용의 상호연관으로서 보다 더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새롭게 규정된”(藤原克己, 1995: 66) 개념이다. 그런 만큼 중국 문헌의 인용이 모노가타리 작품세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문화와 일본문화가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한 방법으로서 모노가타리 문학 내 한문서적의 인용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속에서 가나 문자라는 민족어 문자로 집필된 모노가타리에 중국의 한문서적을 비롯한 외래문물이 어떻게 인용되고 수용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인용이 작품의 구조와 주제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11세기 전후 중국과 일본의 문화교류가 어떠하였는지 그 내실의 일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⁹ 진고웅과 최진석의 번역은 허영주(2016: 28)의 논문을 재인용하였다.

¹⁰ 본 절의 본문 내용은 이미숙(2014: 42-53)의 『겐지 모노가타리』 해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¹¹ ‘히키우타’란 유명한 옛 와카(和歌) 구절을 인용하여 본래 와카가 지니고 있는 정취를 살려 소화시키는 표현기법으로 모노가타리 작품에 많이 쓰인다.

그리고 소재로서의 인용과 구조로서의 인용을 함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겐지 모노가타리』에 인용되어 있는 『백씨문집』에 수록된 한시들이다. 『겐지 모노가타리』에 영향을 미친 한문서적으로는 백거이의 『백씨문집(白氏文集)』 속의 「장한가(長恨歌)」와 「이부인(李夫人)」,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수록된 「여후본기(呂后本紀)」와 「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 「여불위열전(呂不韋列傳)」, 『후한서(後漢書)』 ‘청하왕경전(清河王慶傳)’¹²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백거이의 『백씨문집』은 한문서적 가운데 헤이안 시대 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백거이 한시의 영향은 운문과 산문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의 한시집인 『간케분소(菅家文章)』를 비롯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수필집인 세이쇼나곤(清少納言)의 『마쿠라노소시(枕草子)』 등에도 인용되어 있으며, 특히 『겐지 모노가타리』에 인용된 백거이의 시는 소재 차원의 인용은 물론이고 작품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어 오늘날에도 일본문학에 미친 백거이 한시의 영향에 관해서는 활발히 연구¹³되고 있다. 『백씨문집』은 무라사키시키키부의 『무라사키시키키부 일기』에 그녀가 쇼시 중궁에게 시를 해설하고 있는 일이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사기』와 함께 그녀가 가장 애독한 한문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백거이의 문학이 헤이안 시대 때 일본문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그의 작품이 9세기 중엽 유학승에 의해 일본에 들어와 가나 산문문학이 활발히 창작되기 직전부터 읽히고 있었던 데다, 인간의 희로애락 등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가슴 깊이 다가오는 시가 많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겐지 모노가타리』 첫째 권인 「기리쓰보(桐壺)」 권에는 주인공 히카루겐지의 아버지인 기리쓰보 천황(桐壺天皇)이 히카루겐지를 낳자마자 세상을 뜬 가장 사랑하였던 후궁 기리쓰보 갱의(桐壺更衣)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기술한 장면이 있

¹² 청하효왕 경(清河孝王慶), 즉 청하왕 경은, 숙종효장제(肅宗孝章帝), 즉 장제(章帝)의 황자로 태어났다. 경의 생애에 관해서는, 『후한서』 권3 숙종효장제 제3, 권4 효화효상제기(孝和孝殤帝紀) 제4, 권5 효안제기(孝安帝紀) 제5, 또는 권10 상 황후기(皇后紀) 제10 상의 장덕두황후기(章德竇皇后紀) 등에 산재하는 경에 관한 기사를 취합하여 그 일부를 알 수 있지만, 권55의 장제팔왕전(章帝八王傳) 중 「경의 전」에 정리된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¹³ 예를 들어 中西進(1997), 新聞一美(2003, 2009) 등.

다. 이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천황의 심정을 나타내는 데 백거이의 「장한가」가 인용되어 있다.

요즈음은 밤낮으로 「장한가」의 그림을 들여다보시는데, 이것은 데이지노인(亭子院) 께서 그리도록 시키신 것으로 이세(伊勢)와 쓰라우키(貫之)에게 와카를 읊게 한 것이다. 주상은 와카든 한시든 그저 이와 관계된 내용만을 늘 화제로 삼으신다. …… 그림 속 양귀비의 용모는 아무리 대단한 화가라 하여도 그림으로 그리는데는 한계가 있었기에 생생한 아름다움까지는 다 드러내지 못한다. 태액지(太液池)의 부용(芙蓉), 미앙궁(未央宮)의 버들이라 하여 그와 아주 닮은 자태인데, 당풍(唐風)의 차림새는 단아하니 아름다웠을 터이지만, 다정하면서도 귀염성 있었던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시자니, 화사한 꽃과 새의 울음소리로도 비길 수가 없다. 아침 저녁의 이야깃거리로, 날개를 나란히 하고 줄기를 서로 엮자고 약속하셨거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삶의 유한함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무라사키시키키부 지음, 이미숙 주해, 2014: 95-96, 98)

당현종과 양귀비의 고사를 시로 형상화한 「장한가」의 구체적인 표현(「歸來池苑皆依舊 太液芙蓉未夾柳 芙蓉如面柳如眉 對此如何不淚垂」 ‘七月七日長生殿 夜半無人私語時 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 天長地久有時盡 此恨綿綿無絕期’)이 인용됨으로써, 양귀비의 죽음 뒤 그녀의 혼이라도 찾고자 애를 썼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던 현종의 애착과 심경이 사랑하는 여인과 사별한 기리쓰보 천황의 상실감과 겹쳐지면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인용을 소재로서의 인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장한가」가 수록된 『백씨문집』 등 중국의 한문서적이 『겐지 모노가타리』의 작품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지적되어온 바이다. 종래의 연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히카루겐지의 일생을 형상화한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 전체의 구조 및 세계가 「장한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양친의 비극적인 사랑을 시작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히카루겐지 이야기’가 기나긴 막을 내리는 「마보로시(女)」 권에도 첫째 권인 「기리쓰보」 권에서 인용되었던 「장한가」의 시 구절이 인용됨으로써 작품의 도입 부분과 결말 부분이 조응(照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편의 구조에 영향을 미

친 「장한가」의 인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수록 작품인 「이부인」은 이부인이 죽은 뒤 남겨진 남성(한무제)의 비탄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는데, 『겐지 모노가타리』의 남성 등장인물인 기리쓰보 천황이나 히카루겐지가 사랑하는 여성들이 세상을 뜬 뒤 그녀들에 대한 애착과 비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투영되어 있다. 이렇듯 『백씨문집』에 실린 한시들은 작품 곳곳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주제를 암시하거나 등장인물들의 심정을 나타내면서 작품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겐지 모노가타리』는 첫째 권인 「기리쓰보」 권에 섭정·관백 정치체제 하의 궁정정치 현실과 천황이 유력한 정치적 후견인이 없는 기리쓰보 껍의를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구도를 꼼꼼하게 설정해두고 있는데, 이것은 당현종의 총애 덕분에 양귀비와 그 일문이 절대적인 권세를 누린 끝에 몰락해가는 「장한가」의 세계와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또한 인간 관계와 설정, 결말 등을 비교 분석해보았을 때, 『사기』의 인물들 또한 『백씨문집』의 「장한가」와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주체는 부모세대이며 자식세대의 이야기로는 진전되지 못하여 정편¹⁴의 남자 주인공인 ‘히카루겐지 이야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은 ‘황자였던 한 남자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백씨문집』이나 『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이나 관계구도는 『겐지 모노가타리』 내 인물 조형이나 설정에 단편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정편을 관통하는 주인공 ‘히카루겐지 이야기’ 전체를 도출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이 ‘히카루겐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모노가타리 세계를 관통해나가는 틀 속에서 전개되는 모노가타리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을 때, 니헤이 미치아키(仁平道明, 2000: 237-257) 씨가 지적한 『후한서』 ‘청하왕 경 전’의 서사구조는 주목할 만하다.

¹⁴ 『겐지 모노가타리』는 정편 41권(또는 첩), 속편 13권, 총 54권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정편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속편을 3부로 보아 3부 구성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주인공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정편 41권, 속편 13권, 2부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의 흐름, 즉 이야기의 전개를 통합해나가는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정편의 주인공은 히카루겐지(光源氏), 속편의 주인공은 가오루(薰)로 볼 수 있다.

『후한서』 ‘청하왕 경 전’과 ‘히카루겐지 이야기’의 유사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청하왕 경 전’은 모친인 송귀인(宋貴人)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며 경의 탄생, 모친의 비극적인 죽음, 부친인 장제의 상심, 어린 경의 후일담으로 전개된다. ‘청하왕 경 전’은 모친이 황후보다는 낮은 지위인 귀인이라는 점, 송귀인에 대한 장제의 총애와 그 사이에 태어난 황자가 제위(帝位)에 오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 미워하고 있다는 점, 홍휘전 여어(弘徽殿女御)를 연상시키는 높은 지위의 여성에 대한 묘사, 황자의 모친 송귀인의 죽음, 송귀인의 죽음을 추도하여 조칙을 내려 애도하는 장제의 모습, 경의 조부인 양의 죽음과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히카루겐지 외조모의 묘사에 나타난 표현의 유사점,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황자를 불쌍히 여기는 부제의 모습, 경이 이전에 송귀인이 한때 머물렀던 ‘병사(丙舍)’에 따로 나가 산다는 점, 누명을 쓴 경의 해명이 형제간인 화제(和帝)에게 받아들여져 면죄를 받은 점, 뒷날 경의 아들인 안제(安帝)가 제위에 오른 점, 경이 사후에 효덕황(孝德皇)이라는 존호를 추증받은 점 등에 주목할 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히카루겐지 이야기’라는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의 이야기 구조와 부합한다. 또한 무라사키 시키부가 삼사오경(三史五經), 특히 『사기』, 『한서』, 『후한서』라는 삼사에 상당히 밝았다는 한문서적에 대한 그녀의 교양 또한 ‘제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으면서도 그 신분에서 멀어진 황자였던 한 남성의 이야기’라는 틀을 지닌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이 『후한서』 ‘청하왕 경 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가능성을 방증해준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인용’이 출전을 지적하는 등의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 구상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은 『후한서』 ‘청하왕 경 전’을 축으로 하면서 「장한가」의 사랑의 서정성과 「사기」의 인물 설정 등을 받아들여 일본 내적인 문학 전통¹⁵과 융합시켜 탄생한 모노가타리로 볼 수

¹⁵ 일본 내적인 문학 전통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나온 와카(和歌, 57577 조의 운문)와 「이세 모노가타리」와 「가게로 일기」라는 앞서 등장한 산문문학이다. 헤이안 시대에 와카는 단순한 문예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배태되는 심정과 사유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였다. 등장인물들의 마음속 생각을 표현하고 남녀 간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수단으로 사용된 와카는 산문과 융합하여 지문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면서 「겐지 모노가타리」의 문체를 형성하였다. 「겐

있다. 일본문학의 정수이자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겐지 모노가타리』의 탄생에는 견당사라는 문화교류의 통로를 통해 들어온 중국의 한문서적이라는 외래 문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대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통로인 견당사, 그리고 그러한 통로를 통해 유입된 문물의 현주소인 나라 쇼소인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밖에서 들어온 한문서적이라는 외래지식과 외래문명이 그 시대 일본문화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와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텍스트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 모노가타리 작품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헤이안 경(교토)에서 아무런 바탕 없이 등장한 작품은 아니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나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작품 속에는 내적으로는 그 이전의 일본문학의 전통이 담겨 있으며, 외적으로는 일본문명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충돌하며 일본 나름의 문명을 형성해나가는 데 영향을 미쳤던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문명과의 교류가 존재하였다. 모든 외래문명이 들어오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 녹아 일본 고유의 것과 섞인다는 일본문학의 수용방식의 한 예를 고대 일본의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통로와 수용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8년 11월 16일 | 심사일: 2018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23일

『겐지 모노가타리』에 실려 있는 795수의 와카는 앞서 나온 와카 집에 실린 와카를 인용하였고, 독자는 와카의 본래 시적 세계를 전제로 하여 와카에 실린 등장인물의 내면을 읽어냄으로써 작품세계는 더욱 심화하였다. 『이세 모노가타리』는 ‘옛날의 어떤 남자(昔男)’로 기술되어 있는 아리하라 나리히라(在原業平)라는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인데, 남성 주인공의 이로고노미(色好み)적인 성격이 히카루겐지의 조형에 영향을 미쳤다. 『가게로 일기』는 10세기 후반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가나 문자로 쓴 일기문학으로서 현존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산문문학이다. 당대의 혼인제도 속에서 여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지난한 삶과 나아가 인간 삶의 허무함, 그리고 남녀관계의 허무함에 대한 『가게로 일기』의 현실 응시의 시각과 자기 성찰은 『겐지 모노가타리』로 이어졌으며, 여성 이야기로서의 『겐지 모노가타리』의 주제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 무라사키시키키부 저. 이미숙 주해. 2014. 『겐지 모노가타리 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_____. 2017. 『겐지 모노가타리 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엔닌 저, 신복룡 역·주해. 1991. 『入唐求法巡禮行記』. 서울: 정신세계사.
- 이미숙. 2015. “일본 초기서사의 특질과 독자성—현존하는 모노가타리의 시조(始祖),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의 서사세계—.” 『동아시아문화연구』 63, 217-253.
- 전동진. 2006. “시간의식과 장르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8, 200, 199-224.
- 진고응 저. 최재목·박종연 역. 2008. 『진고응이 풀이한 노자』. 대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최진석. 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 허영주. 2016. “노자 ‘유(有)’와 ‘무(無)’ 그리고 ‘도(道)’에 대한 비본질적 관점: 도덕경 ‘생(生)’ 자에 대한 해석중심으로.” 『생명연구』 41, 17-43.
- 林良一. 1966. 『シルクロードと正倉院』. 『日本の美術』 第六卷. 東京: 平凡社.
- 秋山虔. 1970. “外的時間と内的時間.” 『国文学』 1970年 5月号, 89-100.
- 佐藤勢紀子. 1987. “道綱母の年始観をめぐる一考察—時間意識解明の手がかりとして—.” 『かげろふ日記 回想と書くこと』, 133-143. 東京: 有精堂.
- 東野治之. 1988. 『正倉院』. 東京: 岩波書店.
- 源為憲 著. 出雲路修 校注. 1990. 『三宝絵』. 東京: 平凡社.
- 青木和夫·稲岡耕二·笹山晴生·白藤禮幸 校注. 1990. 『続日本紀 二』. 新日本古典文学大系 13. 東京: 岩波書店.
- 黒板勝美 編輯. 1934. 『續日本後紀』. 新訂増補國史大系 普及版. 東京: 吉川弘文館.
- 片桐洋一·福井貞助·高橋正治·清水好子 校注·訳. 1994. 『竹取物語 伊勢物語 大和物語 平中物語』.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12. 東京: 小学館.
- 藤原克己. 1995. “引用.” 『キーワード100 古典文学の述語集』, 66-67. 東京: 学燈社.
- 石井正敏. 1996. “遣唐使の見た大陸と人々.” 『国文学 解釈と鑑賞』 第61卷 10号, 27-33.
- 中西進. 1997. 『源氏物語と白楽天』. 東京: 岩波書店.
- 清少納言 著. 松尾聰·永井和子 校注·訳. 1997. 『枕草子』.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18. 東京: 小学館.
- 仁平道明. 2000. “『源氏物語』と『後漢書』清河王慶伝.” 『和漢比較文學論考』, 237-257. 東京: 武藏野書院.
- 東大寺教学部 編. 2002. 『新版シルクロード往来人物辞典』. 京都: 昭和堂.

- 古瀬奈津子. 2003. 『遣唐使の見た中国』, 東京: 吉川弘文館.
- 新聞一美. 2003. 『源氏物語と白居易の文学』, 大阪: 和泉書院.
- 金光林. 2006. “東アジアにおける越境経営の先例—新羅坊・倭館・唐人屋敷を拠点とした貿易と国際活動—.” 『新潟産業大学経済学部紀要』 30, 119-125.
- 東野治之. 2007. 『遣唐使』, 東京: 岩波書店.
- 新聞一美. 2009. 『源氏物語の構想と漢詩文』, 大阪: 和泉書院.
- 米田雄介. 2010. 『奇蹟の正倉院宝物』, 東京: 角川学芸出版.
- 王勇. 2010. “東アジア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とブックロード.” 『東アジア文化還流』 3-2, 1-11.
- 李炳魯. 2012. “平安初期における北東アジア世界の交渉と現況—張保臯と円仁を中心として—.” 『北東アジア研究』 22, 67-79.
- 河添房江. 2014. 『唐物の文化史』, 東京: 岩波書店.

Abstract

The Formation of Japanese Civilization and Acceptance Formation of Foreign Civilization: Shosoin and Kentoushi, Monogatari of the Heian Period

Misuk Lee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studied the Kentoushi, the passageway through which ancient Japan conducted exchanges with the rest of East Asian civilization and the concrete aspects of the culture that flowed from such a passag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Shosoin in Nara. Moreover, I focus on the extrinsic knowledge from Chinese books brought into Japan and how it begins to influence the Japanese civilization; I look at the specific aspects of it, analyzing classic literary texts from the Heian period called “Taketori Monogatari” and “Genji Monogatari.” From such considerations, we confirm aspects of the acceptance method practiced by the Japanese civilization, formed via fusion with outpatient civilizations, particularly China, all the while in constant collision with foreign entities.

Keywords | Shosoin, Kentoushi, Bookroad, Taketorimonogatari, Genjimonogatari

